

모더나 생산 차질로 7월말 공급예정 물량 일주일 늦는다



화이자 등 이달에만 총 908만회 도입 7월 도입 목표량 1000만회분 못 미쳐 “8월 도입엔 18~50대 접종 차질 없어”

당초 7월 말 공급 예정이었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생산 차질 문제로 최소 일주일 늦게 들어오게 됐다.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 등을 포함해 7월에 총 1000만회분의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100만회분이 부족한 908만회분만 들어오게 됐다.

다만 정부는 3분기 백신 공급량으로 집단면역을 위한 3600만명의 접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더나사 측에서 당초 7월에 공급 예정이던 백신 물량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일정 조정이 불가피함을 통보했다”라며 “이에 따라서 세부 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다. 모더나사에 따르면 7월 말 공급 예정물량이

8월로 일정 조정됐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통보를 지난 23일 오후에 받았고, 이후 대체 물량 확보 여부와 공급 재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날 공개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백신도입사무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더나사에 제조 공정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중”이라며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더나의 경우 백신 원액은 스위스에서, 병에 따르는 병입 과정은 스페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 백신도입사무국장은 “이번 생산 관리 이슈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제조사 생산분을 공

급받는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단 이 역학조사분석단장은 “8월 공급은 7월 공급 물량과 제조소가 달라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임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에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은 그대로 들어오고, 7월에 도입 예정이었던 연기된 물량은 8월에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된다.

한편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267만9000회분은 오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은 7월 675만3000회분이 도입 완료된다.

29일에는 개별 계약된 얀센 백신 10만1000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7월에는 총 908만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이 미뤄지면서 정부가 밝혔



던 7월 도입 물량 1000만회분보다 모자란 수이다.

정 백신도입사무국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급일정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급이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

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일부 지연 문제가 발생했지만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8월 계획대

로 물량이 도입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0대 접종과 8월 중에 진행 예정인 18~49세 접종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세한 8월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바백스까지...4000만회분 도입예정이었지만 허가 지연

당국 “3분기 공급량 3600만명 1차 접종 지장 없어”



올해 3분기부터 총 4000만회분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예상보다 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이 없더라도 3분기까지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백신도입사무국장은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9월 (도입) 물량에 노바백스 백신이 포함돼 있지만, 허가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노바백스 백신을 제외하더라도 3분기 공급량으로 3600만명 1차 접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바백스사와 개별 계약으로 선구매한 물량은 총 4000만회분(2000만명분)이다.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아스트라제네카·얀센),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화이자·모더나)과 달리 노바백스는 합성 항원 백신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노바백스 백신 물량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생산하고, 이를 정부에 판매하는 방식(라이선스 인)으로 계약됐다.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분기까지 계약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 2000만회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유럽 허가 당국의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신청하지 않

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장은 “기업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허가 서류 일부 제출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노바백스 백신을 제외하더라도 3분기 공급량으로는 3600만명 1차 접종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이 확정된 총물량은 1억9300만회분이다. 이 가운데 이날까지 총 2492만회분이 도입됐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총 3000만회분, 얀센 10만1000회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아스트라제네카 83만5000회분 등 3100만여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백신 도입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에는 4200만여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당국은 현재 제약사와 공급 일정과 일정 공개를 협의 중이다.

“교차접종이 AZ 동일접종보다 예방효과 최대 6배 높아”

질병청 국립감염병연구소, 수도권 의료인 499명 교차접종 연구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중화항체 형성률이 교차접종자가 동일 백신 접종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와 동일 접종 모두 2회 접종 시 중화항체 생성률은 100%였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수도권 소재 10개 의료기관 의료인 499명을 대상으로 한 교차접종 비교연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2차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교차접종자 100명과 아스트라제네카로 2회 접종을 받은 199명, 화이자로 2회 접종을 받은 200명을 비교했다.

그 결과 2회를 접종했을 경우 동일백신 접종군과 교차접종군 모두 100% 중화항체가 형성됐다. 1차 접종 후 중화항체 생성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군에서 96%, 화이자

백신 접종군에서 99%였다.

교차 접종군의 경우, 중화항체의 값(중화항체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군에 비해 6배 높았으며 화이자 백신 2회 접종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50%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항체가(ND50)가 교차 접종군은 2368이었고 화이자 접종군은 2135,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은 393이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인 중

화능의 경우 교차 접종군 및 동일백신 접종군 모두에서 알파형 변이에 대한 중화능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베타·감마·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능은 주요 변이가 아닌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2.5~6.0배 감소했다.

단 당국은 “교차 접종군에서 델타 변이는 표준주 대비 3.4배 중화능이 감소했지만, 화이자 동일접종군 및 아스트라제네카 동일접종군에 비해서는 중화능이 높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견된 침묵으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